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패인식분석에 관한 연구

## Attitude to the Corruption Perception for the Improv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배 정 환(Bae, Jeong Hwan)\*

### ABSTRACT

Securing the administrative transparency and trust in the government are of core importance in the recent administrative reform activities. This tendency is also related to issues of New Governance, and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growing more powerful and their roles are further highlighted. Therefore, efforts to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reinforce the administrative transparency, and the obtain people's trust in the government are of greatest importance; naturally, the roles of the civil society that enable the above tasks are in need of further growth.

In this study, I observed Japan's Information Disclosure Level Evaluation case and our nation's government evaluation result to find appropriate measures to secure administrative transparency. The study result revealed that in order to secure administrative transparency, there is a need to secure the participation of the citizens regarding administrative work, the joint participation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regarding administrative evaluation, and the unification and relation of the evaluation method to further the administrative transparency.

Key Words : 국가경쟁력(The National Competitiveness), 반부패(Anti-Corruption),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 부패인식(Corruption Perception), 발전단계(Stage of development)

## 1. 서론

1980년대 이후 경영전략이론에서 출발한 국가경쟁력에 대한 논의는 90년대 이후 소위 신경제 현상속에서 미국, 일본 등 국가들간의 경쟁력 우위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또한 여타 국가들간에도 거시경제성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이 전개되면서 국가경쟁력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WEF(세계경제포럼)와 IMD(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의 세계경쟁력 보고서가 발간되면 언론의 주요기사로 취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경쟁력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90년 이후 부패문제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으로 93년 TI(국제투명성기구)의 출범과 더불어 WEF와

\* 행정학박사,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IMD의 국가경쟁력 측정에 사용한 부패관련 지표들을 포함한 부패인식도 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매년 발표하면서 국가경쟁력과 부패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연구를 통해 경제성장에 부패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1인당 GDP와 부패사이의 상관관계, 그리고 외국인투자와 부패간의 상관관계를 밝혀냈다(이상환, 2004).

즉,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부패척결이 일종의 상승작용을 하는 촉매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부패문제에 대한 연구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각 부분별 하위지수와 부패지수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국가발전단계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요소를 실증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국제부패지수 2006(Report on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 Global Corruption Barometer 2006)에서 조사한 국가별 사회영역별 부패인식조사결과를 기반한 각 영역별 지수값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과 상관관계를 밝히고 국가발전단계별로 국가를 분류하여 각 단계별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요인을 찾아낼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국가경쟁력 측정영역의 우열관계를 벗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사회영역간의 부패인식을 국가발전단계별로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써 각 단계에 속한 국가들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II. 국가경쟁력과 부패

### 1. 국가경쟁력의 의의

국가차원의 경쟁력 개념은 17세기 중상주의적 보호정책이 이념적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5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간 무역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였고 이 결과 자원의 효율적인 획득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세계 경제의 빠른 통합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국적 기업의 출현, 그리고 소비지역과 공급지역의 지역적 분리를 가속화시켜, 과거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변화는 곧바로 국가간의 생산성 경쟁으로 격화되었고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이 구사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가경쟁력(National Competitiveness)에 대한 동일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가경쟁력의 구성요소와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어 실제로 평가기관마다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WEF(World Economic Forum)는 2006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국가경쟁력 개념을 ‘한 나라의 생산성을 결정짓는 정책과 제도의 구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1)</sup>.

또한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경쟁력 개념을 ‘영토내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에게 국내적,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을 제고해주는 국가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정책기획위원회, 2007).

우리나라 산업자원부 산하의 연구기관인 산업정책연구원(The 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 Studies: IPS)은 국가경쟁력에 대해 ‘한 국가의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종합적인 능력’이라고 국가경쟁력을 정의하고 있다. 이 밖에 OECD는 ‘장기간에 걸쳐 자국민의 실질소득을 유지하고 확대해가는 수준’이라 정의하고 있다<sup>2)</sup>.

<표 1>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의 개념규정

기관 및 출처	국가경쟁력 개념	특성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6)	한 나라의 생산성을 결정짓는 정책과 제도의 구성	제도와 정책에 초점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4)	국가가 기업의 더 많은 가치창출과 국민의 더 많은 번영을 유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창출하는 능력	기업을 지원하는 국가능력 중시
IPS	한 국가의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종합적인 능력	산업의 경쟁력 중시
OECD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조건하에서 한 국가가 세계시장의 요구에 맞는 재화와 용역 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자국민의 실질소득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는 수준	장기적 관점의 국가경쟁력 개념
EU (Competitiveness Advisory Group 1999)	경쟁력은 생산성, 효율성, 수익성의 요소를 의미하며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강력한 수단	국가차원의 생산성 향상을 의미
U.S.A (U.S. Competitiveness 2001)	세계시장의 요구에 맞춰 고부가가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모든 미국인들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국가의 능력(OECD정의와 동일). 즉 국가차원의 경쟁력은 뛰어난 생산성 향상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음.	국가 혁신역량 확대주력
U.K. (Competitiveness White Paper 2000)	기업을 지원하고 혁신을 자극하는 능력(Capability), 기업이 경쟁우위를 갖도록 하는 협력(Collaboration), 경쟁촉진(Competition) 등	지식기반경제하에 새로운 정부역할 강조
일본경제연구센터	경제성장의 결과가 아닌 장래의 경쟁력으로서, 어느 국가가 향후 경쟁력을 키워 갈 소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의미	미래 경제주도 요인 초점, hard data만 사용.
중국사회과학원	계량경제학적 측면에서의 국가 생산성	현재 거시경제적 측면 강조

자료: IMD, 2004: 75-76, 한국행정연구원, 2005:7-8, 정책기획위원회. 2006:6,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참조하여 재구성.

- 1) “National competitiveness as the set of factors, Policies and institutions that determine the level of productivity of a country”.
- 2) “Competitiveness is the degree to which a nation can, under free trade and fair market conditions produce goods and services which meet the test of international markets, while simultaneously maintaining and expending the real income of its people over the long-term”. 한국행정연구원, 2005:7에서 재인용.

이러한 국가경쟁력에 대한 통일된 개념의 부재에도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주요한 목적으로 ‘자국민의 소득을 증가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 2. 국가경쟁력 측정 및 지수

WEF는 국가의 경쟁력을 ‘지속적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제도 및 제반 요소’로 정의하고 국가경쟁력을 경제성장경쟁력의 3개 분야(거시경제환경, 공공기관, 기술력)와, 기업경영경쟁력 2개 분야(기업경영전략 정교화, 국내기업 경영환경의 질)를 합쳐 5개 분야로 구분하고 이를 7개 부문, 93개 항목(경성자료 14개, 설문자료 79개)을 적용, 평가하고 있다.

<표 2> 주요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의 평가부문과 방법

평가기관	주요평가부문	평가국가	평가방법	경쟁력 주요순위 * ( )는 2005년 순위 ** WEF평가 2004년 순위
IMD(2006)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경영효율성 사회인프라	61개 국가	126개 통계자료와 113개 분야 설문자료 를 분야별로 점수화	1위: 미국(1) 2위: 홍콩(2) 3위: 싱가포르(3) 4위: 아이슬란드(4) 17위: 일본(21) 19위: 중국(31) 23위: 말레이시아(28) 32위: 대만(27) 38위: 한국(29)
WEF(2005)	거시환경 공공부문 기술부문	117개 국가	거시환경, 공공부문, 기술의 3개 부문으로 나누며, 이는 다시 8 개 항목으로 평가	1위: 핀란드(1) 2위: 미국(2) 3위: 스웨덴(3) 4위: 덴마크(5) 5위: 대만(4) 6위: 싱가포르(7) 12위: 일본(9) 17위: 한국(29) 24위: 말레이시아(31)
IPS (산업정책연구원, 2006)	물적요소(4개부문) 인적요소(4개부문)	66개 국가	물적요소 및 인적요소 8개 부문의 23개 하 위부문과 그 하위 275개 세부항목 평가	1위: 미국(1) 2위: 네덜란드(3) 3위: 덴마크(4) 8위: 홍콩(10) 16위: 일본(19) 20위: 대만(18) 22위: 한국(22) 24위: 중국(24) 66위 : 이란(65)
CASS (중국사회과학원, 2006)	경제성장을 수출 노동생산성 1인당GDP	100개 국가	경제성장률과 1인당 GDP(국내총생산), 상 품 및 서비스 수출, 노동생산성 등을 자체 개발한 모형에 대입, 국가경쟁력 순위를 평 가	1위: 미국 2위: 독일 3위: 일본 4위: 프랑스 11위: 홍콩 20위: 한국 34위: 중국

IMD는 세계 경쟁력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매년 5월 전 세계 61개 국가 및 권역의 경쟁력을 평가, 발표하고 있다. IMD는 세계경쟁력을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제반여건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경쟁력 분야를 크게 경제운영 성과, 정부행정 효율, 기업경영 효율, 발전인프라 등 4가지로 구분하고 다시 각 분야를 5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총 20개 부문에 대하여 314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2005 기준)하고 있다. 이 중 241개 항목은 128개 통계자료(hard data, 54%)와 113개의 설문조사(survey, 46%)로 구성하여 직접 반영하고, 나머지 73개 항목은 보조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4대 분야에 관련한 설문항목은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 달라 경제운영성과 분야와 발전인프라분야는 거시총량과 하드웨어 투자부문으로 설문비중이 각각 11%, 3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반면 정부행정효율 분야와 기업경영효율 분야는 제도와 시스템 부문으로 설문항목이 각각 66%, 63%나 차지하는 등 설문비중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표 3> IMD와 WEF의 평가항목 구성비교

IMD 국가경쟁력 평가(종합 순위)						WEF 국가경쟁력 평가						
						1. WEF 경제성장경쟁력(GCI) 순위						
① 경제운영성과분야			② 정부행정효율분야			① 거시경제환경분야			② 공공기관분야			
5대 부문 (77개 항목)	국내경제	28개 항목	5대 부문 (73개 항목)	공공재정	11개항목	3대 부문 (10개 항목)	거시경제안정	8개 항목	2대 부문 (7개 항목)	계약이행 및 법규준수	4개 항목	
	국제무역	20개 항목		재정정책	15개항목		정부낭비요소	1개 항목		공공기관 부패	3개 항목	
	국제투자	17개 항목		제도적 여건	16개항목		국가신용등급	1개 항목				
	고용	8개 항목		기업관련법	20개항목							
	가격	4개 항목		사회적 제반여건	11개항목							
③ 발전인프라분야			④ 기업경영효율분야			③ 기술력분야			2. 기업경영경쟁력 (BCI) 순위			
5대 부문 (95개 항목)	기반인프라	22개 항목	5대 부문 (69개 항목)	생산성·효율성	9개항목	2대 부문 (16개 항목)	혁신	6개 항목	④기업경영전략 정교화 분야			15개 항목
	기술인프라	20개 항목		노동시장	21개항목		정보통신기술	10개 항목	⑤국내기업 경영 환경 질 분야	45개 항목		
	과학인프라	22개 항목		금융	21개항목							
	보건 및 환경	17개 항목		경영활동	11개항목							
	교육	14개 항목		행태·가치	7개항목							
총 314개 항목						GCI 33개 항목			BCI 60개 항목			
									총 93개 항목			

자료 : 국무조정실·경쟁력평가원, 2005.

우리 나라의 산업정책연구원(IPS)과 국제경쟁력연구원(IPS-NaC)은 2001년부터 전세계 66개국을 대상으로 8개 부문 275개 항목을 적용해 국가 순위를 매긴 IPS 국가경쟁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IPS 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는 DDD 모델을 통해 국내 및 국제 차원에서 한나라의 산업이 가진 물적요소와 인적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가 경쟁력 순위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 평가모델은 물적요소 4개(생산요소, 시장수요, 관련 및 지원산업, 경영여건)와 인적요소 4개(근로자, 정치가 및 행정관료, 기업가, 전문가)로 이뤄진 8개 부문 아래 23개의 하위 부문으로 나뉘어 있고 그 아래 총 275개의 세부 항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는 국내외 통계자료와 전세계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을 통한 설문조사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계량경제학적 측면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력과 인구, 영토의 넓이, 군사력, 외교력, 자연자원, 정부의 거시경제 조정능력, 정보통신 등의 지표를 분석해 10대 주요 국가의 순위를 매겼다. 이번 주요국의 경쟁력 조사에서 GDP와 기술력, 인력자본, 자본력, 정보력, 자연자원, 군사력, 외교력, 정부조정능력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사용되었으며 IMD나 WEF,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연구원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하고 있는 교육이나 환경부분의 주요지표는 사용되지 않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사회과학원은 2006년 발표된 조사를 위해 중국과 대만의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해 자체 개발한 틀과 방법으로 비교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평가대상 국가 선정과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 3. 부패인식도 지수

1990년대 이후 부패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과거 국제적 부패문제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이 고질적인 병폐로서 부패를 인식하고 주로 도덕적·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해 온 반면 오늘날의 연구는 통상문제와 연관된 국제사회에서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경험적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이상환, 2004). 즉, 부패가 경제성장이나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간 생산성 경쟁에 있어 부패가 갖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고 국가의 경쟁력과의 관계에서 부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연구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나 세계은행(World Bank) 등 여러 기관에서 기업가 또는 전문가의 설문에 기초한 부패지수나 다양한 자료를 이용한 부패지수를 이용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국제 반부패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TI는 1993년 설립되어 현재 90여 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1995년부터 매년 각국의 부패인식도 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TI는 두 가지 명백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데 첫째, 부정부패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것이며, 둘째, 국내 및 국제적으로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IT는 반부패 운동의 일환으로 부패에 대한 국가별 부패인식도 지수를 2003년 133개국, 2005년 159개국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6년에는 독일 파사우(Passau)대학의 랍스돌프 교수에게 CPI 작업을 위임하여 163개국을 평가하였다.

2006년 부패인식도 지수(CPI)를 측정하기 위한 사용된 원천자료로는 9개 기관에서 12개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실시되었으며 과거 3년간의 이동평균을 사용하지 않고 2년 동안의 자료를 사용하여 평가가 이루어 졌다.

&lt;표 4&gt; 2006년 부패인식지수(CPI)의 자료출처

번호	1	2	3
약자	CPIA	EIU	FH
출처	세계은행(IDA와 IBRD)	Economist Intelligence Unit	Freedom House
자료 명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Country Risk Service and Country Forecast	Nations in Transit
연도	2005	2006	2006
웹 주소	<a href="http://web.worldbank.org/">http://web.worldbank.org/</a>	<a href="http://www.eiu.com">www.eiu.com</a>	<a href="http://www.freedomhouse.org/research/nattransit.htm">http://www.freedomhouse.org/research/nattransit.htm</a>
조사대상	각국 현지 팀, 세계은행 내외의 전문가	전문가 직원 평가	조사 대상국 출신자나 거주자 전문가의 평가
질문내용	부패, 이해충돌, 자금유용/반부패 노력과 성과	공무를 개인적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오용하는 것	정부의 실제 부패 정도, 국민의 인식, 언론보도, 그리고 자발적 반부패 실천 정도
응답 수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대상국	76개국(IDA자금 적격국가)	157 개국	29 개국/영토
번호	4	5	6
약자	IMD		MIG
출처	IMD International, Switzerland, World Competitiveness Center, Lausanne, Switzerland		Merchant International Group
자료 명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Grey Area Dynamics
연도	2005	2006	2006
웹 주소	<a href="http://www.imd.ch/wcc">www.imd.ch/wcc</a>		<a href="http://www.merchantinternational.com">www.merchantinternational.com</a>
조사대상	국내기업과 국제기업의 최고, 중간 경영자		전문가 직원과 지역 응답자 네트워크
질문내용	경제의 뇌물과 부패		부패(정부각료의 뇌물로부터 말단관리의 뇌물권유에 이르기까지)
응답 수	4,000 이상		Not applicable
대상국	51 개국		155 개국
번호	7	8	9
약자	PERC		UNECA
출처	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자료 명	Asian Intelligence Newsletter		Africa Governance Report
연도	2004	2006	2005
웹 주소	<a href="http://www.asiarisk.com/">www.asiarisk.com/</a>		<a href="http://www.uneca.org/agr/">http://www.uneca.org/agr/</a>
조사대상	기업의 외국인 총역		각국 전문가 조사(각국별 70~120명)
질문내용	당신이 일하고 있는 나라와 당신의 모국에서 부패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가?		“부패 통제”(입법, 사법, 행정, 조세 측면의 부패는 물론, 사법과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
응답 수	1,000 이상	1,000 이상	개략적으로 2,800
대상국	12 개국	14 개국	28 개국
번호	10	11	12
약자	WEF		WMRC
출처	세계경제포럼		World Markets Research Centre
자료 명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Risk Ratings
연도	2005/06	2006/07	2005
웹 주소	<a href="http://www.weforum.org">www.weforum.org</a>		<a href="http://www.wmrc.com">www.wmrc.com</a>
조사대상	국내 기업과 국제 기업의 종견 기업인		전문가 직원 평가
질문내용	정부의 여러 가지 기능과 관련한 비자금과 뇌물		작은 관료부패로부터 거대한 정치부패에 이르기까지, 부패공무원을 만나게 될 정도
응답 수	10,993	Ca. 11,000	Not applicable
대상국	117 개국	125 개국	186 개국

자료: (사)한국투명성기구, 2006년 부패인식지수 종합.

#### 4. 국가경쟁력과 부패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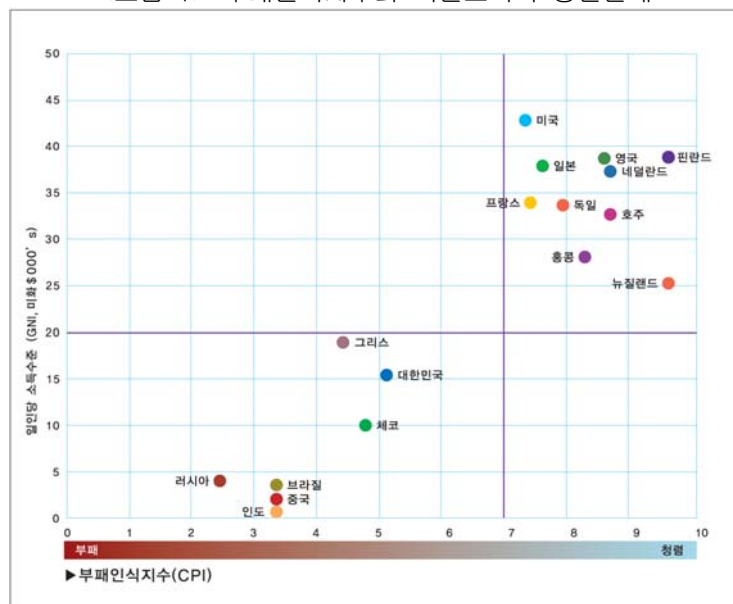
국가경쟁력과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와 비교는 경제, 사회, 기술의 청렴이 보다 깨끗한 정부인식과 연동되어 있음을 암시한다(반부패국민연대, 2001).

국가경쟁력 평가순위를 비교해보면 국가경쟁력지수와 부패인식지수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그러나 모든 국가에서 국가경쟁력지수가 높다고 해서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것은 아니다. 실제로 WEF의 국가경쟁력지수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를 비교해 보면 Iceland의 경우 2006년 부패인식지수는 가장 높은 반면 국가경쟁력 순위는 1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은 국가경쟁력지수는 6위지만 부패지수순위는 20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 등 국가경쟁력은 높지만 부패인식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와 국가경쟁력을 비교하면 소득이 높은 국가의 국가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민소득과 부패인식지수를 비교하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투명성기구, 2006).

<그림 1> 부패인식지수와 국민소득의 상관관계



출처 : GNI(세계은행 2005년 통계), CPI(국제투명성기구 2006)

#### 5. 연구분석의 틀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국가의 신인도와 국가경쟁력의 중요성을 뒤늦게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계기로 국제적 평가에 대한 대응과 취약부분의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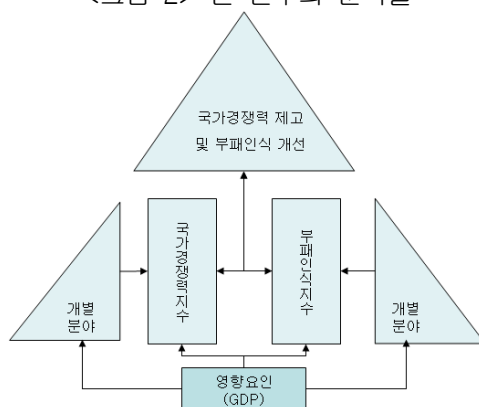
미국 하버드대 Porter교수는 국가경쟁력 발전과정을 설명하면서 “국가가 필연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국가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Porter, 2003).

이러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의 단위 평가부분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양대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의 공통점·차이점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및 대외신인도 강화라는 전제아래 IT 경쟁력은 강화하고 노사관계, 부패에 대한 부분은 개선보완이라는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살펴보면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조사당시 경제·사회에 대한 체감도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유념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보다는 경쟁력 평가 당시의 사회분위기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sup>3)</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쟁력과 부패인식과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이에 따른 국가경쟁력 부분에 대한 개선과 국가경쟁력 부분별 분야와 부패인식간의 연관관계를 밝혀 실제적인 국가경쟁력화보와 부패인식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WEF와 IMD의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통하여 분야별 경쟁력 요소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Poter교수의 국가발전단계별로 국가를 분류하여 국가경쟁력 강점과 단점요인들의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국제투명성 기구의 부패인식지수와 국제부패지표(Global Corruption Barometer 2006)를 사용하여 상호간의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통한 요인을 밝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분야를 밝혀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림 2> 본 연구의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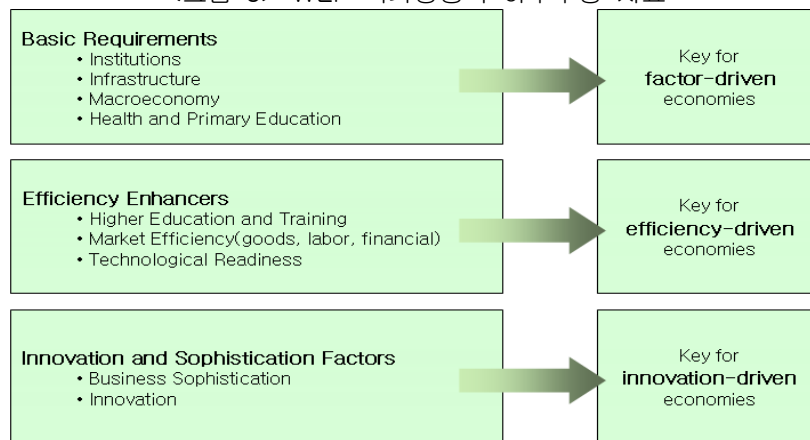
### 3) WEF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내용

“전반적으로 각 분야별 통계 및 설문조사의 비율이 4:6으로 설문결과가 국가경쟁력 종합순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국무조정실·경쟁력평가원, 2005:21.

국가경쟁력 측정지수 분석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WEF의 경쟁력 구성요소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으며 총 125개국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경쟁력 구성요소는 크게 기본적 요구분야(Basic Requirements), 효율성 증진분야(Efficiency Enhancers), 혁신과 지식분야(Innovation and Sophistication Factors)로 나누어지며 각각 4개, 3개, 2개의 세부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경제성장경쟁력을 측정하는 거시경제환경분야, 공공기관분야, 기술력분야에 대한 하부지표 77개를 재구성하여 9개의 지수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이다.

<그림 3> WEF 국가경쟁력 하부구성 지표



또한 국가경쟁력 및 부패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현재 국가의 1인당 GDP를 기준으로 Porter 교수가 이야기한 경제발전단계에 맞추어 요소투입단계(Factor-driven), 투자단계(효율단계)(Investment-driven or Efficiency-driven), 혁신단계(Innovation-driven)의 단계를 맞추어 분리하였고 단계중간의 이행단계를 추가하여 총5단계의 국가발전단계로 구분하였다.

<표 5> 국가발전단계별 구분

Stage 1	Transition 1to 2	Stage 2	Transition 1to 2	Stage 3
GDP p.c < US\$2천	GDP p.c < US\$2천-3천	GDP p.c < US\$3천-9천	GDP p.c < US\$9천-1만7천	GDP p.c > US\$1만7천
Angola Amenia 외 47개국	Albania Peru 외 12개국	Algeria Croatia 외 26개국	Bahrain Korea 외 9개국	Australia USA 외 31개국

자료 :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2006.

### III. 국가경쟁력 및 부패인식 분석

#### 1. 국가경쟁력 측정지수 분석

본 연구에서의 국가경쟁력 측정지수에 대한 분석은 WEF의 국가경쟁력지수를 기반으로 분석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3개 영역의 지수에 대한 평가값과 이를 구성하는 9개의 지수 평가값을 가지고 국가경쟁력 지수와 하부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것이며, 이후 국가발전단계별로 국가를 구분하여 국가발전단계별로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 6>은 국가경쟁력 지수와 재구성한 하부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표이다.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 지수와 하부지수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재구성한 하부지수를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6> 국가경쟁력 지수와 하부지수간의 상관관계

		GCI score	Basic Requirements	Efficiency Enhancers	Innovation Factors
국가경쟁력 지수 (GCI score)	Pearson 상관계수	1	.970(**)	.987(**)	.946(**)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N	125	125	125	125
기본적 요구분야 (Basic Requirements)	Pearson 상관계수	.970(**)	1	.937(**)	.862(**)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N	125	125	125	125
효율성 증진분야 (Efficiency enhancers)	Pearson 상관계수	.987(**)	.937(**)	1	.943(**)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N	125	125	125	125
혁신 분야 (Innovation Factors)	Pearson 상관계수	.946(**)	.862(**)	.943(**)	1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N	125	125	125	125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국가발전 1단계에 속한 국가들은 Angola, China, Egypt, Ukraine를 포함하여 분석대상국은 47개국이다. 국가발전 1단계에 속한 국가들의 국가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기본적 요구분야로 제도, 사회인프라, 거시경제환경, 보건 및 기초교육의 강화와 관련된 분야가 국가경쟁력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국가발전 1단계 국가들의 국가경쟁력 요소간의 상관관계

		GCI score	Basic Requirements	Efficiency Enhancers	Innovation Factors
국가경쟁력 지수 (GCI score)	Pearson 상관계수	1	.960(**)	.946(**)	.781(**)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N	47	47	47	47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또한 국가발전 1단계 국가들의 국가경쟁력 측정 하위지수들이 국가경쟁력지수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기술진보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분과 보건 및 기초교육부분이 경쟁력에 비교적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전체 하부지표가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 없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변수간의 상관성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공선성 통계 결과 공차한계가 0.3이상으로 변수들간의 상관성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발전 1단계에 속한 국가들은 기본적인 요구분야와 관련된 투자와 함께 국가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8> 국가발전 1단계 국가들의 국가경쟁력과 요소간의 다중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상수)	.003	.005		5.592	.047		
Institutions	.123	.002	.118	69.378	.000	.313	3.196
Infrastructure	.125	.001	.160	97.310	.000	.335	2.989
Macroeconomy	.125	.001	.209	181.517	.000	.680	1.470
Health Education	.124	.001	.321	202.198	.000	.359	2.785
Higher education	.135	.001	.190	101.339	.000	.257	3.889
Market efficiency	.133	.003	.122	46.326	.000	.131	7.643
Technological	.135	.003	.103	42.888	.000	.156	6.414
Business	.050	.002	.059	22.983	.000	.140	7.154
Innovation	.050	.003	.047	18.952	.000	.146	6.869

국가발전 1.5단계의 국가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2천-3천 달러 사이의 국가들로 Albania, Peru, Thailand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국가경쟁력 하부요소들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효율성 증진과 관련된 분야로 기업과 노동, 금융의 효율성 및 고등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분야가 국가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9> 국가발전 1.5단계 국가들의 국가경쟁력 요소간의 상관관계

		GCI score	Basic Requirements	Efficiency Enhancers	Innovation Factors
국가경쟁력 지수 (GCI score)	Pearson 상관계수	1	.955(**)	.981(**)	.961(**)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N	12	12	12	12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이와 함께 9개 세부 지수들 중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고 있는 요인으로는 고등교육관련 부분과 기술분야로 분석되었다. 중요영향요인외에 사회인프라와 시장의 효율성도 다소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경제성장의 초기진행 단계에서 경제성장에 기반이 되는 부분들의 효율성을 개선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0> 국가발전 1.5단계 국가들의 국가경쟁력과 요소간의 다중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상수)	.103	.197		5.521	.044		
Institutions	.057	.029	.098	2.002	.183	.065	15.431
Infrastructure	.156	.033	.329	4.732	.042	.032	31.214
Macroeconomy	.084	.020	.090	4.165	.053	.329	3.041
Health Education	.125	.019	.180	6.535	.023	.305	4.874
Higher education	.191	.037	.279	5.105	.036	.352	19.264
Market efficiency	.149	.063	.166	2.355	.143	.031	32.201
Technological	.173	.076	.173	2.269	.151	.027	37.624
Business	.014	.060	.019	.235	.836	.023	43.294
Innovation	.025	.055	.033	.450	.697	.029	34.819

국가발전 2단계 국가들의 국가경쟁력 요소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효율성 강화와 관련된 부분이 국가경쟁력에 가장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부분과 혁신분야에 대한 상관관계를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 국가발전 2단계 국가들의 국가경쟁력 요소간의 상관관계

		GCI score	Basic Requirements	Efficiency Enhancers	Innovation Factors
국가경쟁력 지수 (GCI score)	Pearson 상관계수	1	.857(**)	.939(**)	.854(**)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N	26	26	26	26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국가발전 2단계 국가들의 국가경쟁력과 하부 요소간 다중회귀분석결과는 기술관련분야와 고등교육, 그리고 시장의 효율성이 국가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5단계로 분류된 국가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회인프라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적고 전반적으로 각 부분들이 고르게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lt;표 12&gt; 국가발전 2단계 국가들의 국가경쟁력과 요소간의 다중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상수)	.028	.011		2.624	.019		
Institutions	.102	.002	.186	67.371	.000	.282	3.551
Infrastructure	.100	.002	.170	52.135	.000	.201	4.972
Macroeconomy	.102	.001	.200	97.642	.000	.510	1.962
Health Education	.100	.001	.153	74.107	.000	.500	2.002
Higher education	.163	.002	.215	91.684	.000	.387	2.581
Market efficiency	.156	.003	.199	46.453	.000	.117	8.583
Technological	.168	.003	.231	66.041	.000	.175	5.705
Business	.053	.003	.079	16.644	.000	.095	10.555
Innovation	.050	.003	.055	18.618	.000	.242	4.140

국가발전 2.5단계와 3단계에 속한 국가들은 40개국으로 효율성 증진과 관련된 분야가 가장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상대적으로 혁신분야의 상관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제기반적 요인으로 분류되는 기본적 요구분야, 즉 인프라, 제도, 거시경제환경, 보건 및 기초교육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lt;표 13&gt; 국가발전 2.5단계 및 3단계 국가들의 국가경쟁력 요소간의 상관관계

		GCI score	Basic Requirements	Efficiency Enhancers	Innovation Factors
국가경쟁력 지수 (GCI score)	Pearson 상관계수	1	.856(**)	.978(**)	.939(**)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N	40	40	40	40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국가발전 2.5단계 및 3단계 국가들의 국가경쟁력과 하부요소간의 다중회귀분석결과 주요하게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2단계 국가들의 분석결과와 비슷한 고등 교육분야, 기술관련 분야로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기본적 요구분야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었으며 혁신관련 분야의 영향력이 1, 2단계 국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안정화시기에 도달했고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지적재산과 혁신분야의 투자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lt;표 14&gt; 국가발전 2.5단계 및 3단계 국가들의 국가경쟁력과 요소간의 다중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상수)	.530	.189		2.814	.009		
Institutions	.062	.015	.084	4.128	.000	.374	3.649
Infrastructure	.079	.015	.126	5.082	.000	.384	5.431
Macroeconomy	.056	.011	.066	5.210	.000	.708	1.412
Health Education	.008	.027	.004	.298	.767	.598	1.673
Higher education	.192	.020	.228	9.405	.000	.391	5.234
Market efficiency	.135	.024	.126	5.534	.000	.319	4.572
Technological	.164	.016	.216	10.001	.000	.342	4.129
Business	.102	.021	.130	4.892	.000	.360	6.234
Innovation	.119	.019	.203	6.170	.000	.304	9.645

## 2. 부패인식도 지수 분석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 사이의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정도에 따라 국가별로 순위매긴 것으로 CPI는 공공부문에서의 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부패를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직위의 남용”으로 정의하고 공적권력의 남용과 반부패 정책의 강도와 관련된 행정과 정치분야 부패를 주로 다루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부패가 국가경쟁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부패인식지수와 WEF의 공공기관부패의 설문문항과의 관계를 국가발전단계별 분류에 따라 살펴볼 것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WEF의 공공기관부패 관련 설문문항 7개를 가지고 부패인식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lt;표 15&gt; WEF 공공기관부패 설문 중 CPI와의 비교설문문항

순번	문 항	순번	문 항
1	수출입에 있어서의 불법 지출 (Irregular payments in exports and imports)	5	부패의 경제적 비용 (Business costs of corruption)
2	공공사업에 있어서의 불법 지출 (Irregular payments in public utilities)	6	족벌주의 영향 (Impact of nepotism)
3	조세징수에 있어서 불법 지출 (Irregular payments in tax collection)	7	공무원 결정의 정실성(편파성) (Favoritism in decisions of government officials)
4	법령, 정책, 규제 또는 규칙에 영향을 주기 위한 뇌물 (Bribes for influencing laws, policies, regulations, or decrees)		

국가발전 1단계 국가들의 부패인식지수와 그 하부부패지수와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가장 부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국가발전 1단계에 속한 국가들의 부패문제는 뇌물수수와 관련된 사항이 부패인식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경제발전초기에 있어 뇌물과 관련된 제도를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그 효과를 높이고 국민들의 부패인식에 대한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6> 국가발전 1단계 국가들의 부패인식지수와 하부부패지수와의 상관관계

		CPI	수출입	공익사업	조세징수	뇌물	부패비용	족벌주의	정실성
부패인식지수 CPI	Pearson 상관계수	1	.558(**)	.456(**)	.532(**)	.596(**)	.236	.445(**)	.419(**)
	유의확률 (양쪽)		.000	.001	.000	.000	.111	.002	.003
	N	47	47	47	47	47	47	47	47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국가발전 1.5단계로 저발전단계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가들의 부패인식과 관련하여서는 뇌물과 관련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을 알 수 있다. 1단계 국가들의 부패요인 중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뇌물로 나타났지만 1.5단계에 속한 국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법령, 정책, 규제 또는 규칙에 영향을 주기 위한 뇌물과 관련된 요인과 부패인식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패의 경제적 비용과 관련된 문제도 높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국가발전 1.5단계 국가들의 부패인식지수와 하부부패지수와의 상관관계

		CPI	수출입	공공사업	조세징수	뇌물	부패비용	족벌주의	정실성
부패인식지수 CPI	Pearson 상관계수	1	.702(*)	.579(*)	.439	.903(**)	.853(**)	.724(**)	.752(**)
	유의확률 (양쪽)		.011	.049	.153	.000	.000	.008	.005
	N	12	12	12	12	12	12	12	12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국가발전 2단계로 저발전단계를 벗어나 산업화를 이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부패인식지수와 하부부패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패의 경제적 비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부패인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제가 성장하면서 공공사업 등의 시행시 나타날 수 있는 불법 지출과 관련된 요인이 부패인식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 국가발전 2단계 국가들은 뇌물과 공공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조리를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표 18> 국가발전 2단계 국가들의 부패인식지수와 하부부패지수와의 상관관계

		CPI	수출입	공공사업	조세징수	뇌물	부패비용	족벌주의	정실성
부패인식지수 CPI	Pearson 상관계수	1	.717(**)	.780(**)	.412(*)	.748(**)	.807(**)	.661(**)	.669(**)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37	.000	.000	.000	.000
	N	26	26	26	26	26	26	26	26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국가발전 2.5단계로 혁신적인 국가구조로 변환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의 부패인식과 관련된 요인 중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부분으로 족벌주의와 관련된 특정집단의 이익관계에 대한 부분이 부패인식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겨날 수 있는 특정집단화, 그리고 계층화의 영향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지는 경향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부패인식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공공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법지출이 있었다. 따라서 국가발전 2.5단계의 국가들의 경우 혁신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적절한 계층화 또는 족벌주의 등의 방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9> 국가발전 2.5단계 국가들의 부패인식지수와 하부부패지수와의 상관관계

		CPI	수출입	공공사업	조세징수	뇌물	부패비용	족벌주의	정실성
부패인식지수 CPI	Pearson 상관계수	1	.721(*)	.875(**)	.738(*)	.843(**)	.795(*)	.921(**)	.751(*)
	유의확률 (양쪽)		.028	.002	.023	.004	.011	.000	.020
	N	9	9	9	9	9	9	9	9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국가발전 3단계에 속한 국가들의 경우 부패인식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적절한 부패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발전이 고도화 되었다고 해서 부패가 없는 사회는 아니며 지속적인 부패통제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발전 3단계에 속한 국가들의 부패인식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부분은 부패의 경제적 비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는 법령, 정책, 규제 또는 규칙에 영향을 주기 위한 뇌물과 관련된 부패문제가 부패인식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lt;표 20&gt; 국가발전 3단계 국가들의 부패인식지수와 하부부패지수와의 상관관계

		CPI	수출입	공공사업	조세징수	뇌물	부패비용	특별주의	정실성
부패인식지수 CPI	Pearson 상관계수	1	.878(**)	.858(**)	.761(**)	.884(**)	.914(**)	.779(**)	.846(**)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31	31	31	31	31	31	31	3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3.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패요인에 대한 분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패요인에 대한 분석은 국제투명성기구의 Global corruption Barometer 2006의 부패인식조사를 토대로 국가발전단계별로 특징을 살펴보고 부패영역과 경쟁력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제투명성기구의 Global corruption Barometer 2006은 2006년 12월에 발표되었으며 62개국을 상대로 59,661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Global corruption Barometer는 14개 영역에서 나타나는 부패에 대한 영향을 묻는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lt;표 21&gt; Global corruption Barometer의 주요측정 영역

1. Political parties 2. Parliament/Legislature 3. Business/private sector 4. Police 5. Legal system/Judiciary	6. Media 7. Tax revenue 8. Medical service 9. Education system 10. The military	11. Utilities 12. Registry and permit service 13. NGOs 14. Religious bodies
---	---	--

WDF 국가경쟁력과 부패인식과 관련된 바로미터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언론과 지방정부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면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MD 국가경쟁력 지수와 인터넷학습기반지수<sup>4)</sup>와의 관계를 살펴보다도 유사한 결과값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과 부패인식지수와의 관계는 이를 구성하는 부패하위지수와의 관계에서도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참조할만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The Economist 그룹 산하의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과 IBM은 2003년 최초로 직장, 학교, 정부를 포함한 사회전반에서 인터넷 및 하이테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학습기반 순위(e-learning readiness ranking)'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lt;표 22&gt; 국가경쟁력과 부패바로미터간의 상관관계

		정치	의회	기업 경영	경찰	사법	언론	세금	의료	교육	군대	사회 기반	규제	NGO	지방 정부
WEF 경쟁력 지수	Pearson 상관계수	.567(**)	.665(**)	.395(**)	.684(**)	.817(**)	.118	.697(**)	.688(**)	.699(**)	.583(**)	.562(**)	.818(**)	.393(**)	-.242
	유의확률	.000	.000	.002	.000	.000	.384	.000	.000	.000	.000	.000	.000	.002	.070
	N	57	57	57	57	57	57	57	57	57	57	57	57	57	57
IMD 경쟁력 지수	Pearson 상관계수	.598(**)	.666(**)	.591(**)	.409(**)	.746(**)	.241	.633(**)	.631(**)	.617(**)	.506(**)	.462(**)	.781(**)	.307(*)	.094
	유의확률	.000	.000	.000	.007	.000	.125	.000	.000	.000	.001	.002	.000	.048	.552
	N	42	42	42	42	42	42	42	42	42	42	42	42	42	42
부패지수 CPI	Pearson 상관계수	.681(**)	.763(**)	.482(**)	.728(**)	.835(**)	.185	.748(**)	.719(**)	.763(**)	.616(**)	.551(**)	.843(**)	.439(**)	-.173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15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85
	N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인터넷학 습 기반지수 EIU	Pearson 상관계수	.525(**)	.586(**)	.486(**)	.815(**)	.676(**)	.009	.571(**)	.602(**)	.754(**)	.499(**)	.523(**)	.778(**)	.394(*)	-.042
	유의확률	.000	.000	.001	.000	.000	.956	.000	.000	.000	.001	.000	.000	.011	.796
	N	41	41	41	41	41	41	41	41	41	41	41	41	41	4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국가발전 1단계 국가의 부패인식과 WEF 국가경쟁력 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군대, 경찰, 그리고 사법과 관련된 부분이 국가경쟁력과 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리적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패부분이 국민들의 부패인식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발전을 시작하려는 국가에서는 공공부분의 물리적 공권력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lt;표 23&gt; 국가발전 1단계 국가의 부패인식과 WEF 국가경쟁력 지수와의 상관관계

		정치	의회	기업 경영	경찰	사법	언론	세금	의료	교육	군대	사회 기반	규제	NGO	지방 정부
WEF 경쟁력 지수	Pearson 상관계수	.238	.432	.192	.558(*)	.577(*)	.299	.541(*)	.513(*)	.292	.620(**)	.516(*)	.501(*)	.340	-.094
	유의확률	.357	.084	.460	.020	.015	.243	.025	.035	.255	.008	.034	.041	.182	.721
	N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국가발전 2단계 국가들의 부패인식과 국가경쟁력 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경제성장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제와 관련된 부분의 부패문제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법문제와 관련된 부패문제가 경쟁력 강화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법규적용과 규제문제가 법집행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국가발전 2단계 국가들은 사회적 규제 및 경제적 규제

의 적절한 완화 보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4> 국가발전 2단계 국가의 부패인식과 WEF 국가경쟁력 지수와의 상관관계

		정치	의회	기업 경영	경찰	사법	언론	세금	의료	교육	군대	사회 기반	규제	NGO	지방 정부
WEF 경쟁력 지수	Pearson 상관계수	.086	.132	.073	.149	.532(*)	.307	.268	.324	.208	.104	.252	.588(*)	.298	-.090
	유의확률	.735	.602	.773	.556	.023	.215	.281	.190	.408	.681	.313	.010	.230	.723
	N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국가발전 3단계에 속한 국가들의 경우 국가경쟁력과 가장 큰 영향 관계에 있는 것으로 세금징수 및 탈세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법집행과 관련된 부분인 사법부와 규제집행과 관련된 사항이 국가경쟁력 지수와의 관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국가발전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혁신산업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적절한 세금정책과 법집행, 그리고 사회·경제적 규제의 적절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국가발전 3단계 국가의 부패인식과 WEF 국가경쟁력 지수와의 상관관계

		정치	의회	기업 경영	경찰	사법	언론	세금	의료	교육	군대	사회 기반	규제	NGO	지방 정부
WEF 경쟁력 지수	Pearson 상관계수	.479(*)	.373	.470(*)	.384	.642(**)	.434(*)	.664(**)	.493(*)	.376	.153	.378	.603(**)	-.023	.165
	유의확률	.024	.087	.027	.078	.001	.044	.001	.020	.085	.498	.083	.003	.919	.463
	N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IV. 결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국가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경주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는 치밀한 전략계획을 세워 추진되어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실현은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검토와 현재 국가의 역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부터 시작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하부요인과 현재 국가의 발전단계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수집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발전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있어 부패문제를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를 구성하는 각 영역에 대한 부패인식과 국가경쟁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국가발전단계가 낮은 국가들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본적 인프라의 구축과 고등교육 및 훈련의 강화, 그리고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법령·정책·규제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뇌물과 같은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발전 2단계 국가들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숙련노동자를 위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기술수준의 고도화, 시장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하며 부패의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국가발전 3단계에 도달한 국가들은 혁신을 기반으로 한 효율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혁신관련 고등교육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 그리고 기술수준의 제고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부패의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며 법령·정책·규제에 영향을 주기 위한 뇌물과 관련된 부패인식을 제고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참고문헌

- 국무조정실·경쟁력평가원(2005). 2005년도 IMD·WEF 국가경쟁력 비교분석.
- 박용치·이충민(2005). 부패지수 측정모형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조사연구학회 「조사연구」 6(1):1-38.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2006). 사회지표를 활용한 국가경쟁력 개념연구.
- 산업정책연구원(2006). *IPS National Competitiveness Research 2006 Report*.
- 윤광재(2003). 부패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서울:한국행정연구원.
- 이언호 외(2002). 국가경쟁력의 현실과 정책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002-4, 서울:삼성경제연구소.
- 이상환(2004). 국제적 부패 관련 경험적 연구의 한계와 개선방안: 부패지수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2(1): 139-163.
- 윤광재(2005). 국가경쟁력과 부패인식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부패학회보」 10(3): 69-88.
- 한국행정연구원(2005).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패문제 해소방안 연구」.
- 한국투명성기구 한국본부(2006). 2006년 부패인식지수(CPI).
- International Management of Development(2006).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6*.
- World Economic Forum(2006).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6-200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for the World Economic Forum.

TI(2006). *Report on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 Global Corruption Barometer 2006*.

Porter.M.E(2003). "Building the Microeconomic Foundations of Prosperity: Findings from the Microeconomic competitiveness Index", In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1-200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for the World Economic Forum.

TI(2006).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06*.

TI(2006). *Using the Right to Information as an Anti-Corruption Tool*.

[www.transparency.org](http://www.transparency.org)

[www.kicac.go.kr](http://www.kicac.go.kr)

[www.weforum.org](http://www.weforum.org)

저자약력 : 배정환은 충북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논문 : 도시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측정  
에 관한 연구, 2007)을 취득하고, 현재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재  
직하고 있다. 관심분야는 공공정책 및 지역개발, 정부혁신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컬거버넌스 모델 형성, 지방자치단체 역량 수준별 평가  
방안 연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강도시계획 연구 등이 있다.